일본 사찰에서 성소수자 결혼식을?

이색결혼식 봉행한 사이묘지
"편견 · 차별 극복 위한 방안"
'소수자'도 평등한 사회일원
스님들 퀴어퍼레이드 참여도

박영빈 객원기자


성소수자를 위한 결혼식을 봉행하는 묘칸스님,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가사를 수했다.
사진출처=포브스재팬

일본의 한 사찰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불교결혼식을 봉행하기로 해 화제다. 지난 6월 24일, 일본의 '포브스 재팬' 은 성소수자들과 함께하기로 한 사찰 '사이묘지(最明寺)' 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사이타마현 카와고에(川越)시에 소재한 사이묘지(最明寺)는 13세기에 건립된 천태종의 고찰이다. 사찰과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회를 열고 있는 사이묘지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중들에게 불교와 사찰의 문호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요리법으로 조리한 사찰음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사이묘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 식료품을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1일 나눔행사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사이묘지는 "차별 없는 평등함,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6월부터 성소수자를 위한 결혼식을 해당 사찰에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묘지의 부주지 치다 묘칸 스님은 "인도에서 1년간 수행했던 경험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체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스님은 "인도에서 머물렀던 사찰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 더해 불교 승려인 나는 인도에서 '소수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럼에도 모두가 존중하며 화합을 이루는 모습에 큰 문화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묘칸 스님은 이러한 다양성의 화합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꼽았다. 인도에서 귀국한 후 종파를 막론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행사가 열리면 빠짐없이 참석했다. 더불어 사이묘지가 소재한 카와고에시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 를 모토로 한 행사와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카와고에시에서 열린 첫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스님은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하기 전엔 소수자들이 배타적이라는 편견이 조금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차별없이 서로 존중하며 교류했다"며 회상했다. 스님은 이 퍼레이드에 참여한 것이 이번 결혼식 봉행의 첫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카와고에시에서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파트너쉽 선서제도' 가 도입됐다. 이에 즈음하여 퀴어퍼레이드에서 인연이 된 한 참가자로부터 "사이묘지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나 좌선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스님은 전통사찰로서 성적소수자들에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성적소수자들의 불교결혼식을 생각해냈다. 불교결혼식에선 결혼반지대신 결혼염주를 사용한다.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무지개색 염주도 개발했디.

묘칸 스님은 "동성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찰에서 결혼식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먼저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동성커플뿐만 아니라 이성커플간의 결혼식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불교는 원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포용의 종교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이나 최근 불전 결혼식이 줄어들고 있다. 사이묘지가 추억의 장소로서 누구나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사찰이 되길 바란다"며 사이묘지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순례자는 받지 않습니다"

부다가야호텔협회 등 결정
中 · 印 국경분쟁 여파 확산


부다가야를 순례하는 순례자들.
사진출처=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6월 15일 시작된 인도군과 중국군 간의 국경분쟁이 성지순례자들에게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6월 28일 인도의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자그란 닷컴' 등의 현지 언론들은 불교성지가 밀집한 비하르(Bihar)주에서 중국인 순례자들에 대한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지, 부다가야에서 더 이상 중국인 순례자들이 숙박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현지 호텔협회와 요식업협회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는 신분과 나이, 성별 등을 불문하고 객실을 제공하지 않으며, 식당의 출입을 거부하게 됐다.

부다가야 호텔협회의 사무총장 수다마 쿠마르는 "이번 결정은 중국군이 인도군을 공격하여 도발한 것에 대한 의분에서 비롯됐다. 인도 국민으로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현재 부다가야 호텔협회는 전인도상인협회와 함께 협력하여, 중국인 투숙객 거부와 함께 호텔비품에 대한 중국상품 불매운동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대륙국적자들에 한하며, 대만, 싱가폴 등의 중화권 국가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그란 닷컴' 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 19와 함께 국경분쟁으로 반중정서가 이미 극에 달해있다. 초기에는 일부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사적인 거부 및 불매운동이 있었으나, 협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 중국인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라고 세부상황을 밝혔다. 현재 비하르 주에서는 부다가야를 시작으로 다른 불교성지들이 소재한 도시와 마을에서 중국불매운동과 중국인 거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부다가야에는 중국정부가 건립한 중국불교사찰을 비롯, 대만과 싱가폴 불자들이 세운 사찰들도 산재해 있으며, 상주하는 출가자들도 일부 거주하고 있다. 한 현지 여행업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10~15만 명이 가량 순례를 위해 부다가야와 비하르를 방문한다. 비하르 주의 가장 큰 수입이 관광수입인 것을 보았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인원"이라며 이번 조치가 보여 주기용 일회성 조치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비폭력과 평등,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가 탄생한 성지에서 차별이라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추후 전망이 주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지옥 보여주는 이색사찰들 '화제'

태국 왓 수탓 사원 대표적
사후 과보 드러내는 방안



태국 중부 촌부리의 센숙사원에 설치된 지옥 망자의 모습(좌), 왓 삼파시우 사원의 도라에몽이 그려진 지옥도 모습(우).
사진출처=아사히신문

미소의 나라라고 불리는 태국에서 지옥의 고통을 생생히 보여주는 이색사찰들이 화제다. 지난 6월 27일 일본의 '아사히신문' 은 섬뜩한 그림과 조각상으로 지옥을 표현한 태국 이색 사원을 보도했다.

이색적인 특징을 자랑하는 사찰이 많기로 유명한 태국. 이중 지옥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한 사찰은 최소 8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콕에 소재한 왓 수탓 사원도 지옥의 풍경을 생생히 보여 주는 것으로 인기가 높은 사찰 중 한 곳이다.

사원 중앙에 모셔진 황금빛 불상 뒤에 서있는 기둥에는 17명의 망자들이 가마솥에 삶아지거나 혀를 뽑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일상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후에 이 망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심지어 가마솥을 끓이는 장작은 벌을 받는 망자들의 사지로 묘사되어 더욱 섬뜩하다.

이 외에 살생을 범한 망자가 가는 지옥, 사음을 범한 이가 가는 지옥 등에 대한 묘사도 등장한다. 살생의 죄는 생전에 자신이 죽인 생명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음을 범한 남녀는 알몸으로 가시나무를 오르는 벌을 받는다.

이러한 지옥의 모습들은 사찰을 참배하는 대중들에게 살아 있는 동안 행한 대로 사후세계에서 그 과보를 받는 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태국 중부 수판부리에 위치한 왓 삼파시우 사원은 성인들이 보기에도 섬뜩한 지옥의 풍경을 해학적으로 승화했다. 사찰을 찾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의 만화 캐릭터인 '도라에몽' 을 지옥도에 등장시켰다. 그러나 도라에몽은 지옥에서 끓고 있는 솥 안에서 내세에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망자중 하나로 등장한다. 비록 징벌을 받고 있지만 도라에몽의 등장은 태국 국내외 수많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불교기념일간 주류 판매금지

7월 4 · 5일 초전법륜일 기념

태국 최대 불교 기념일동안 태국 전국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6월 29일 태국의 '더 푸켓 뉴스' '타이레지덴탈' 등의 현지 언론들은 태국 전국에 내려진 금주령을 보도했다.

7월 4일과 7월 6일은 태국에서 초전법륜일(Asarnha Bucha)과 하안거 결재일로 태국 최대의 불교 기념일이다. 해당일 전후를 포함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다. 이번 금주령은 7월 4일 토요일 오전 12시 01분부터 시작해 이튿날 자정에 해제된다.

푸켓 주 경찰 사령관 탁쿠라푼냐시리는 "연휴중 초전법륜일과 하안거 결재일에 주류 판매 금지가 적용된다. 그러나 공항 면세점은 판매가 가능하다. 이외의 공휴일에는 주류 판매가 가능하지만, 금주령 기간 중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 혹은 10만 바트(한화 약 4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연휴 동안 태국의 관공서 대부분은 4일간 문을 닫으며, 주요 은행 지점 등 금융 시설도 일부 폐쇄된다.

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초전법륜일을 기념해 불자들이 가까운 사찰을 참배하고, 저녁에는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대규모 집회는 없을 예정이다. 태국 국립 불교 사무국장 사로즈 칸시리아신은 "사찰 방문자와 행사 참여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하고 대규모 집회는 지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 법당천도법고
태 징 | 목 어
서 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010-5264-3906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